

요셉이 방성대곡하다
창세기 45:1~15

요셉의 사랑 유다의 기도

어제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이야기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번째는 요셉의 사랑이었고 두번째는 유다의 중보기도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제 공부한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왜 요셉의 사랑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을까요? 형들에 대한 용서하는 사랑, 조건없는 사랑 때문에 감동했습니다. 조건있는 사랑은 감동이 없습니다. 조건없는 사랑,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할 가치가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눈물이 나고 가슴이 따듯해 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하나는 유다입니다. 사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는 요셉을 애굽에 팔았던 장본인입니다. 우물가 안에 들어가 있는 요셉을 죽이지는 말고 팔아버리라고 제안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이 유다가 이제는 동생 베냐민을 위해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내 생명을 바껴서라도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런 유다의 간청을 듣고도 우리의 마음이 녹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셉은 형들과 있었던 과거의 일에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과거의 일을 쉽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과거를 생각하는 사람은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상처준 것이 기억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잊어야 합니다. 그것이 녹아져야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승리한 것 같습니다. 형들과의 20년 전의 상처를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들을 어린 아이와 같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조건없는 사랑, 절대적인 사랑은 치유와 기적을 만듭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할 때 상처를 주고 받는 까닭은 내 사랑이 조건적, 상대적, 이기적, 감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랑에 상처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적을 만들고 치유하고, 죽었던 사람을 살리고 절망했던 사람을 끌어내고, 희망없던 사람에게 희망을 불어 넣는 사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모치고 자기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녀는 부모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의 이기적인 사랑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이기적인 사랑을 받으면 병듭니다. 한쪽으로는 사랑하지만 한쪽으로는 괴롭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아이들이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사랑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중보기도입니다. 동생 베냐민의 위기를 보면서 배다른 형인 유다는 요셉에게 찾아가 혼신의 힘을 다해 간청을 합니다. 사실 마음이 없었다면 유다는 요셉의 명령에 물러설 수도 있었습니다. 대개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열심히 하다가 도망갈 일이 생기면 도망가고 맙니다. ‘누가 뭐라해도 나는 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도는 장식품과 마찬가지로이기 때문입니다.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사건이 나면 헤어집니다. 사건이 생기면 핑계삼아 가버립니다. 이것은 ‘사랑의 거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은 때려도 붙들고 있고, 욕해도 붙들고 있고, 발로 차도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유다에게서 이것을 발견합니다.

“절대로 베냐민은 안됩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에게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라고 붙들었던 유다의 간청을 보면서 제 마음이 녹습니다. 조건없는 사랑, 생명을 거는 중보기도가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었던 것은 생명을 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습관적인 기도, 열불같은 기도를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고 좋은 일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였습니다. 얼마나 심각했던지 천사가 와서 도와주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조국을 위해, 민족을 위해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냉소적이고 비판적입니다. 우리는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거리를 두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책임을 지는 기도, 생명을 거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기도가 심각하지 않은 사람은 인생이 심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농담하듯 인생을 삽니다. 저는 여러분의 생애에 이런 심각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하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이 땅에 부흥을 주옵소서.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부흥을 주옵소서. 소망없는 이 민족에게 희망을 주옵소서. 사랑의 질이 달라지게 하시고, 내용이 달라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진실 앞에서

이것이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제는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입니다. 요셉이 유다의 간청을 듣고 더 이상 버티지 못합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유다가 ‘베냐민은 안됩니다. 저를 노예로 삼으십시오.’라고 끝까지 말하니까 요셉이 드라마를 포기합니다. 1,2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와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사랑 앞에 무너지는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진실은 이렇게 무섭고 사랑은 이처럼 무섭습니다. 희생하겠다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요셉은 더이상 드라마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진실이 여러분 삶에 클라이맥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더 이상 북받치는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어서 부하들에게 나가라고 하고 형들 앞에서 방성대곡을 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부인의 진실 앞에서 방성대곡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진실 앞에서 대성통곡하는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3절을 보십시오. 요셉은 드디어 자기의 이름을 말합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형들이 얼마나 놀랐던지 한 마디를 못합니다. 충격받은 형들 앞에서 요셉은 계속해서 자기를 이야기 합니다. 4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그런 말을 할 수록 형들의 입은 더 닫힙니다. 그런데 중요한 메시지가 5절에 있습니다. 요셉의 입에서 나오는 기가막힌 말을 들어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 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아넘긴 것은 나를 미워해서기도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계획이었습니다’라고 하는 엉뚱한 해석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기가막힙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6~8절입니다.

이 땅에 이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오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버지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사건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바꾸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사건, 죽이고 싶은 사건인데 축복의 사건으로 바꾸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꿈을 가진 사람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남북한의 불행은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주가 축복이 되고 불행한 사건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요셉의 해석은 좀 더 확실해 집니다. ‘지금 이 흉년 2년째인데 앞으로 5년동안 흉년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당신들의 손을 통해 나를 애굽으로 보내 최고의 실력자가 되게 해서 아버지와 형들을 보호하게 하시는 섭리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억지아닙니까? 아무리 봐도 이것은 억지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해석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이렇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보통 상식적인 수준에서 해석한다면 이러한 해석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세상에서 그렇게 밖에 살 수 없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면 모든 불행한 사건은 축복의 사건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믿음은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힘입니다. 사건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고, 저주를 행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건이 축복의 사건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비밀 캐기

하나님의 섭리는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지나가야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해가 되질 않았습다. 바다에다 만들라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산에다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배를 만들라고 하면 쉽습니다. 그러나 방주는 배가 아니었습니다. 배같은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방주의 길이가 축구장만 하니 이상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방주를 지었는데 창문이 없었습니다. 몇 백년이 지나도 해석이 안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미리 알 수 없습니다. 대홍수가 나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크기만이 해일이 나고 지진이 났을 때 뒤집히지 않는 크기입니다. 창문이 있다면 150일동안 보는 것은 시체뿐입니다. 그 것을 못보게 하셨습니다. 동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람으로 움직이게 하신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병들게 하고 이런 고통 가운데 두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믿어야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 때가 되면 비밀을 압니다. 이것이 섭리요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는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 넘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친 사람’이란 소리도 들을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यो, 우리가 사는 방법은 세상과는 너무 달라서 그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결론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7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20년 동안 묵상한 결론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러한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이 비밀을 하나씩 캐나가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모릅니다. 혈기왕성하고, 똑똑한 척하고 이성이 발달될 때는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이 이래서 내게 병을 주셨고, 나를 낮추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고, 끝난 것 같은데 계속 갑니다. 할렐루야!

이 비밀을 맛보는 기쁨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이것이 신앙의 기쁨입니다. 내가 무너지고 깨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비밀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역사를 이해하는 관점입니다. 세상의 것과 얼마나 다르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곤혹을 치르고 감옥에 갔습니다. 긴 세월동안 침묵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것이 결코 그 인생을 끝장내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대신으로 만들어 주셨을까요? 간단합니다. ‘형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더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열 두 아들이 열 두 지파가 되는데, 자격없고 부도덕하고 혈기많은 아들들을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 연단하시고 믿음의 지파로 세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단순히 형들을 도와준 사건이 아닙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의를 이루시고,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경륜을 바라보십시오.

환란의 고비를 넘어

사랑하는 형제 자매여러분, 여러분은 왜 장애인이 된 줄 아십니까? 왜 여러분의 사업이 실패한 줄 아십니까? 현실을 보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먼 훗날 지나고 보면 그것이 축복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내게 꼭 필요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은 주무십니까? 하나님은 귀가 먹었습니까? 하나님은 왜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왜 저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두십니까?’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고난이 한 두 번 오면 괜찮은데 파도처럼 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구원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당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남편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점잖게 하나님께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엉덩이를 걷어차이고 매를 맞아야 돌아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얻어맞고 깨지고 상처받고 어려운 일을 겪고 나서야 겨우 자기 자신과 하나님에 대해 눈을 뜨는 것이 인간입니다.

구원이라는 관점이 없으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며 세상은 얼마나 부조리합니까? 그래서 인생을 냉소적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절망적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고난도 의미가 있고 역경도 의미가 있습니다. 해석되지 않는 많은 사건들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9~11절에 나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다섯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형들에서 야곱으로 옮겨집니다. 형들을 구원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야곱의 구원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구원의 대 드라마를 만드신 것입니다.

넘치는 기쁨과 감격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영적 통찰력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열 두 지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그 약속을 자신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7년의 흉년은 계시록에 나오는 7년 대환란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 환란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성도를 지켜주십니다. 이 환란의 때에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지금은 환란의 때이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 애굽의 권력자로 삼아 주셔서 아버지를 보호하고 형들을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먼 훗날 메시아를 보내 주실 것이라는 거룩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이런 섭리를 행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에는 구원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패에도 구원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대 드라마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7년 대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성도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기근이 올 것이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성도들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어려운 일을 겪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대 드라마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고, 남편과 자녀, 부모님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민족이 변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이해되지 않는 사건을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구원론적인 관점과 종말론적인 관점입니다. 역사는 이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할 때 다 해결됩니다. 12~15절입니다.

당신들은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서의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고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 하니라

형들은 이제야 입을 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입을 열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가온 모든 고난을 감사하기 시작하십시오. 감격, 기쁨,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을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 교회를 만드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요셉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실패하고 병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건이 해석되게 하옵소서.
저주와 같이 느껴지는 억울한 사건이
축복의 사건임을 알게 하옵소서.
기막힌 기근 앞에서도 풍성한 음식을 주시고
불투명한 미래를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